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40호 현대불교

29

2011년 6월 15일(음 5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자기 중심의 막대기를 믿지 않고 어딜 믿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끝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찰나에 벗을 수가 있겠지만 영혼의 근본 뿌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길 가끔 합니다. 콩씨는 콩씨를 면치 못하고, 콩씨는 콩씨를 면치 못한다고요. 이 세상 이치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거늘, 때로는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죽는 게 원통하고, 사는 게 복잡하고 외롭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고 또 젊었을 때가 있었고 늙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데 아이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젊었을 때 젊어서 또 그렇게 살아왔고, 나이가 좀 들면 드는 대로 부모 생각이 나고,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생각도 날 거고,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만 될 건지, 또 '내가 아무 때 연분에는 참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거를 그렇게 했어!' 하기도 하면서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그 뜨거운 정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죠. 왜하면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늙어 보니까 말합니다. 아마도 젊은 혈기로써 살아나갈 때는 그런 걸 일일이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지혜가 생기고, 철도 나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하면서 은혜를 갚고 끝없는 세월을 빛이 되게끔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근심도 생기겠죠.

요새 그 뭐 삼풍백화점, 거기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말합니다. 모두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빛어지는 일들이죠.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아픔을 좀 더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고통이 생각하고, 모두 나 아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진실하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찌나' 하는 생각으로 잘 배풀어 줄 수가 있고, 잘 리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눈이 멀고 귀가 트이지 못해서 나중에는 훌쩍 다 없애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 도반으로서 걸림 없는 길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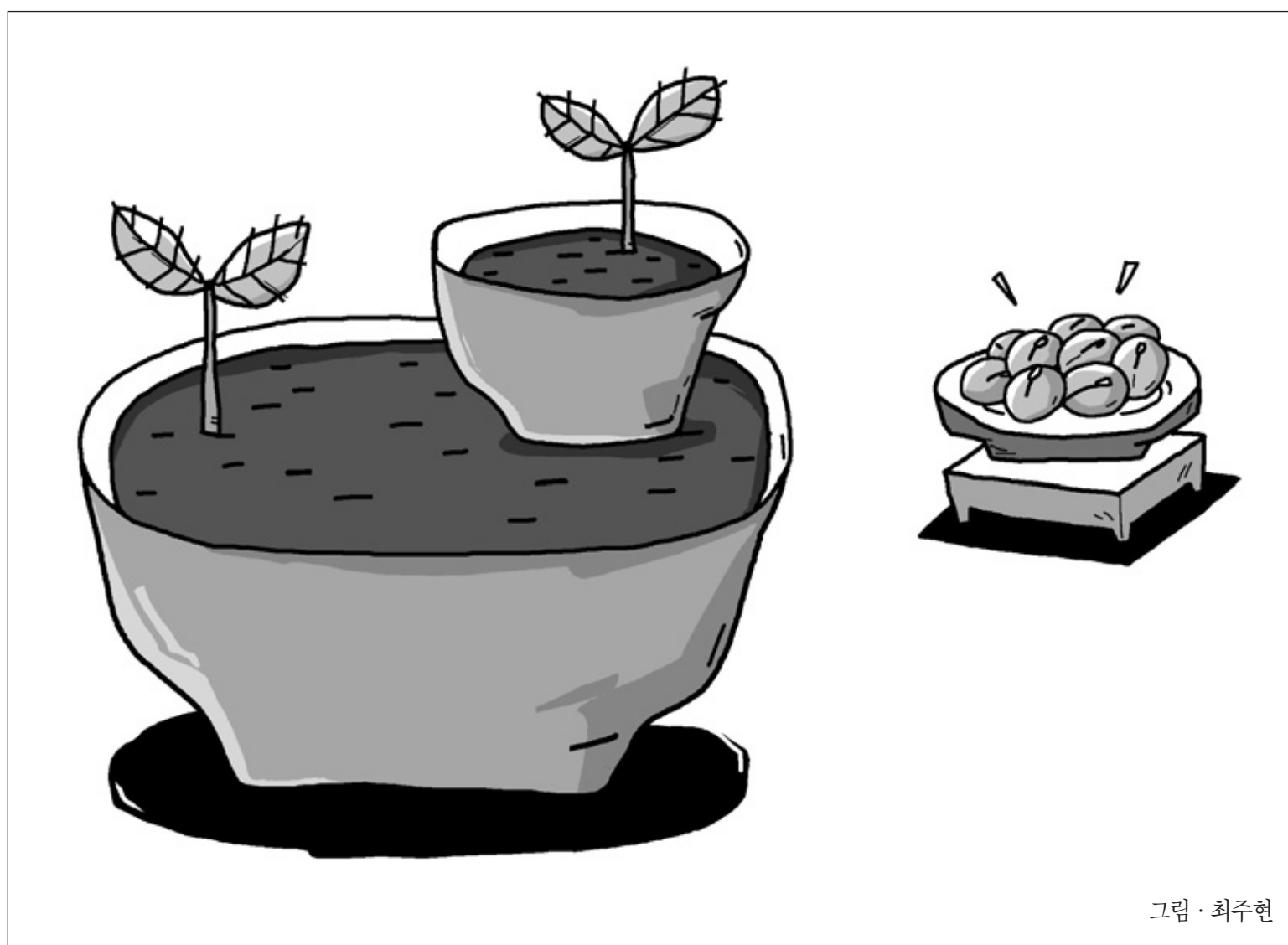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에 한 인간의 삶이 다해 갑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자가 천차만별입니다.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종자라는 그 두 글자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차원이 큰 콩씨다, 아주 조그만 콩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큰 콩씨로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덮을 수 있는 종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조그마한 종자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당신 뿌리에 놓으라고 하니까, 모두 어떻게 놓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놓으려고 놓으려고 애써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래 콩씨와 콩씨는 텔레야 텔

수 없는 부분인데 말합니다. 그래서 콩씨가 콩씨으로 화(化)하려면 수분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은 다 놔두고라도 그 씨는 정자, 난자를 기반으로 자기가 씩으로 화합니다. 씩으로 화하는데 그 씩이 어디 가서 내 콩씨를 찾겠습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서 뿌리를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형상에게 내 뿌리, 씨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하며 누구를 믿으며... 그러나 그 콩씨만이 콩씨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몸뚱이 버려서 바로 씩으로 만들어서, 그 씩이 화하게 되면은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하나도 아닌 몇 개

씩, 그리고 탄 사람들을 다 먹고도 그 종자는 되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의 중생이라고 그러죠. 살아나기면서 남과 나와 돌 아니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몸뚱이 속에도 헤어질 수가 없이 많은 이익 중생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들어도 같이 들고, 봐도 같이 보고, 사랑을 해도 같이 하고, 같이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 생각하자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는 자기중심의 막대기를 믿지 않고 어딜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이가 허망하

게 그냥 저런 구덩이에 산 채로 묻히게 되는 것도, 콩씨가 콩씨를 다스리고 나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도님들 얘기 들으니까, 시장을 봐 오는데 거기에 가기가 싫어서 탄 데로 갔다고 합니다. 왜 가기가 싫었을까요? 그런 콩씨와 콩씨가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가 자기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 뿌리만이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선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뚱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거기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한테 확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죽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저리로 가게 만들죠. 그런 왜?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를 끌고 가는 거죠. 즉, 바로 자기 몸뚱이자 시자며, 시자이자 바로 자입니다. 나는 그런 데서 그렇게 잘못되는 길을 걷지 않겠다. 고 한다고 안 걸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악업, 선업 중에 유전성, 인과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다섯 가지가 주눅했다가 차례차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례차례 나오는 것을 도입력을 하니까, 앞서게 없애지면서 또렷하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시며) 심봉이, 바로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장이 자기 몸뚱이를 자꾸자꾸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잘못된다 싶으면 술을 먹기 싫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또 가다가 술을 먹어야만 되면 그 술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게끔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기도 하구요. 여러 가지 건입니다. 이 자기 주인공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해서 자부처라고 했고, 자성불이라고 했고,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한 도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항상 영화배우들과 같아서 지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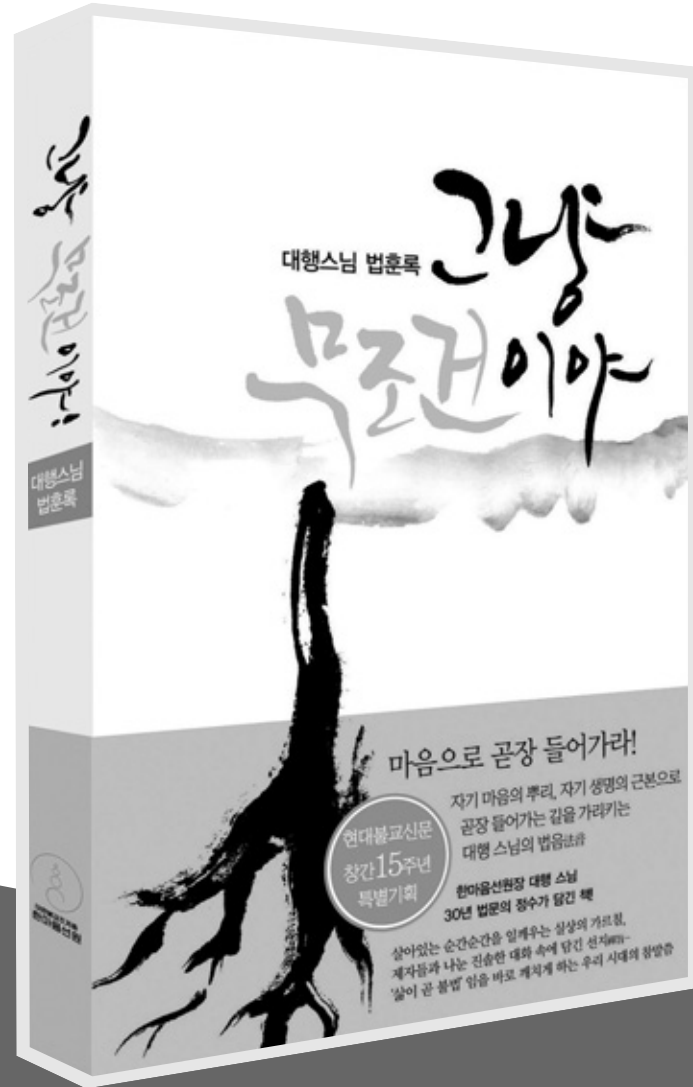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천차만별의 일들이 마음 하나로부터 벌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금 자기가 소임 맡은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나가 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 세요. 어떤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추접한 배역 을 맡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건 왜 그 러나? 자기 역은 막이 내리면 끝이고 원래로 되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막이 내리면 다 끝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잠시 잠깐 배역을 맡았을 뿐이니까 머슴으로 나왔든 지 어쨌든 자기 맡은 바 수행을 아주 잘 마치 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그 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가난하기 그지없든지 그 배 역을 맡았으니가 지극하게, 나쁜 마음 갖지 말고, 모두를 내 스승으로 알고, 자만과 거만을 떨지 말 고, 있다고 거만 부리지 말고, 없다고 위축되지 말 고 항상 지극하게 진실하게 해 나간다면은 우주 법계에서 다 알아요.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 하나 살아나가는 것도 우리 자신만 아는 게 아니 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겁 니다. 모르시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보지 않는 줄 알고, 듣지 않는 줄 알고, 남의 흉도 하고 또 도둑 질 아닌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만좌중에 흠쳐 가는 것과 같고, 만좌중에 흉보는 것과 같고, 만좌 중에 이간질하는 것과 같아서, 만좌중에 험담하고, 발별 악의적인 일들을 행하고 말과 뜻을 다 거지 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 는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 니다.

나는 그래서, 저 허공도 없고 세상도 없는 가운 데 작대기로 스승을 삼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 작대기인 스승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처님 모셔 놓은 데 가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높이는 뭐 가 높아? 당신이 오히려 불쌍해서 죽었어. 당신은 작든 크든, 벌레든 사람이든, 돌이든 흙이든, 모두 의 심부름꾼과 더불어 같이 크매니, 항상 말을 씌 어 주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뭐가 높 아? 이 도리를 알게 한 것도 당신인데 어떻게 감 사하고 말로 다 하리까?'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걸 봐도 항 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디를 지나가다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봐도, '허허, 저런 생명들, 저런 모습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 게 배웠을까. 어떻게 저런 게 있는 줄 알았을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을 어떻게 알았을 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감사하 게 생각하다 보면 절로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도반으로서 이렇게 앉았지만 어떤 땐 '허허, 나는 그렇지 않지만 저분들은 그래도 내 고깃덩어리를 얹혀 놓고...' 그 고깃덩어리만 보 여 주는 게 아니라 그 고깃덩어리 속의 공씨가, 입을 빌려서 말을 자주 여러분한테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함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함이 없이 부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놓아지지 않는 다'고 하시는데 왜 놓아지지 않느냐? 항상 여러 분한테 말했듯 이,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고 더불어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움직여주고, 자 도 같이 자고... 여러분은 안 그 라십니까?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고 앉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러는 게 누구 덕으로 그렇게 됩니까? 모두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뭉쳤기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뭉쳤 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 가락이 하나 두 개라도 없으면은 열 손가락으 로 다 들어야 할 무거운 것을 못 들게 됩니다. 그 렷듯이 여러분의 그 한 몸뚱이 속에 세계가 벌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가 벌어졌어 요. 그래서 위 나라가 있고 장 나라가 있고, 심장 나라가 있고, 척추 나라가 있고, 척추 나라가 있고, 식도 나라가 있고, 나라가 많이 있어서 그 나라를 한데 포함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중에 한 나라만 없어져도 이 전체 세계가 다 죽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 어찌 내 겹데기 나가 나라고 하면서 뽐내겠습니까? 뽐낼 거 하나도 없죠. 내가 홀로 섰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홀로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구

성된 동체(同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체 속에 움직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주는 선장이 있어서 몸을 움직거리게 하 는데,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끊어다 쓰듯이 용 도에 따라서 그 힘을 쓰지만 하면 되는 것을 그 렷게 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수 차 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고걸 줄 여서 줄여서 해 놓은 게 반야심경입니다. 그 반 야심경을 더 줄인다면 불심(佛心)입니다, 불심!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에요, 마음!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 하나로부터 벌어지는 겁 니다. 그게. 그러니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 니까? 여러분도 시원하게 한판 치고 울든, 한판 치고 웃든, 그냥 좀 그래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 다. 깨진다, 성불한다, 뭐 견성한다 이런 건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 병원에 간 사람, 또 살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 세생생에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등장 을 할 수 있느니라. 금(金)이 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게,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 고 말입니다. 또 물 흐르는 걸 한없이 내려다보 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 마음이 저 물 흘러가는 것과 같은데 어찌 칼 로 톱 끊을 수 있으리까.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말 일 뿐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꼬리에 꼬릴 물고, 꼬리에 꼬릴 물고 나오는 그 마음을, 화해서 변동이 되면서 찰나찰나 나오는 그 마 음을 어떻게 다 말로 하고 어떻게 끊으리까. 그래서부터 '아, 끊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은 사람은 현대말, 현대말을 해야지 어떻게 삼천 년 전 용도의 방편으로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리 좋은 말이라도 말을 해서 지금 알아듣지 못한 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범우들의 이 범회날, 누가 높다. 알다 이런 걸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토론하자는 생 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 렷게 올려놓으신 (대중 웃음) 자기네들은 말 한 마디 없고 그렇니까? 이걸 어떻게 있는 것이 아 닌니까?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좀더 안다 고 자만과 위세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뺏뺏이 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도 그럴 게 없어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요. 푸르렀을 때, 아주 푸르렀을 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았을 때 아주 뺏뺏하 게 일어나죠. 그러니 나만 말을 시키지 말고 살 아나가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그것이 삶 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토론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아마.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 은 "말을 해도 아니 되고 또 안다고 해도 아니 되 고, 말을 하면은 외려 잘못된다." 이러지만, 여러 분이 말을 하면 말을 한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 니까? 금방 이 말했다가 저 말로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한 사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혼자 말했 습니까, 내가 말했게? 더불어 같이, 헤어질 수 없는 생명들이 같이 모여서 말을 한 것이지 자 기 혼자 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공(空)했다 이라는 겁니다. 공해서 한 사이 없다 이렇게 말 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 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 아니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라, 즉 공씨와 공씨가 둘이 아니라. 뿔뿔아 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씨 이 공씨를 발견한다면, 공씨와 공씨는 둘이 아닌 깨달에 그 몸이 그렇게 크니라.' 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보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몸을 보고는 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 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 이제 나만 말 시 키지 말고요, 말씀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너희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잘 중심을 뒤편 중용을 하라.
중심을 두면은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세생생에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등장을 할 수 있느니라.

양으로 바들바들하고, 또 살리려고 바들바들하고 그러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나는 그런 걸 많이 봐 왔습니다. 개미 굴이나 또는 개구리들, 또는 뱀 소굴, 뭐 여러 벌레들 소굴이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거나 이리다면 그냥 우리가 대형사고가났 다고 하듯이, 그네들도 그럴 겁니다. 온통 그냥 난 리가 나죠. 난리를 벌이는데 그것과 똑같아요. 아 주.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부러진 것도 그 냥 끌고 가고, 목 떨어진 것도 끌고 가고, 이 개미 들이 그렇습니다. 개구리도 창자가 쪽 빠져 나왔는 데도 그냥 얹고 가고 말입니다. 똑같아요, 크고 작 을 뿐이지.

그러니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생명과 더불어 사는 도리 는 어찌 다르겠느냐는 얘입니다. 우리가 사람으 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서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걸러서 잘 중심을 뒤편 중용을 하 라. 중심을 두면은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감사하다고 놓고, 또 잘못되는 건 '네' 속에서 나 온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거다 가 뇌라, 뇌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죠. 첫째, 위로 역대 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죠. 또 자기가 낳아 놓은 2세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지 죠. 그 다음에는 조상, 나, 자식, 삼대가 다 세세생 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좋은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중세계에서 고통받고 있죠.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세계에서는 마음에 따라서 체로 걸러지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세계로 떨어뜨리고, 상 세계로 올리고, 중세계에 그냥 남겨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물건도 그렇듯이, 종자들도 그 렷듯이, 이런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아 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립니다. 옛날 부처님의 말 씀으로, 그때의 방편과 용도로 말을 한다면, 나는 현대에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현대에 나

*위 법문은 1995년 7월 2일 범형제범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 茶 영 瑩 보 普 이 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시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